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무산…교전 재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집트 중재안 하마스 거부

이스라엘 첫 사망자 발생

이집트가 제안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안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양측이 15일(현지시간) 또다시 교전했다.

8일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스라엘에서도 하마스 공격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AP, AFP통신은 세계표준시(GMT) 기준으로 15일 오전 6시(현지시간 오전 9시)를 기해 휴전하라는 이집트의 중재안이 하마스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당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공습을 중단했다가 하마스가 중재안을 거부하며 로켓 공격을 계속하자 6시간 만에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는 교전을 계속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며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대답은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하마스의 파우지 바르훔 대변인은 "적대행위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약속 없는 휴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로켓과 박격포 120발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군도 오후부터 가자지구를 33차례 공습했다.

8일째 이어진 충돌로 팔레스타인에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400명을 웃돌고 있다.

유엔은 이 중 4분의 1이 어린이, 4분의 3이 민간인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AFP통신은 현지시간 15일 오후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에레즈 국경 근처에서 38세 이스라엘 남성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스라엘 에레즈 국경 근처 진지에 있던 병사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다가 로켓 공격을 받고 숨졌다. 지금까지 발생한 이스라엘쪽 부상자는 4명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을 끝내기 위해 제시된 이집트의 첫 중재안이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의 휴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집트가 전날 제시한 휴전 중재안을 각자 검토했지만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전 국방·외무장관 등 8명이 참석하는 안보각료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한 끝에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중재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는 휴전안을 내놓은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에게 불신감을 나타내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하마스는 휴전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 해제, 라파 국경 개방,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재소자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아베 日총리 정상회담 제안 거부…"변화된 모습부터 보여야"

과거사 부정·우경화 해결해야

중국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중일 정상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훙레이(洪磊) 대변인 명의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의 제안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반응을 내놨다.

훙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재 중일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은 명확하다"면서 "중국은 중일 지도자의 접촉(회동)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실제 행동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일본 정부가 먼저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중일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가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린 집단 자위권 집중 심의 답변을 통해 11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태풍, 필리핀 또다시 습격

제9호 태풍 '람마순(Rammasun)'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루손 섬을 엄습한 가운데 루손 섬 주민들이 강력한 비바람을 피해 나무 뒤로 숨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현재 12명이 숨지고 2만7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구글어스에 '뻥' 뚫린 안보 한미연합사 지하벙커 노출

전쟁시 지휘소…극비 시설

구조물·주변 지형까지 나와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사시 전쟁 지휘소로 사용하는 지하벙커 'CP 탱고'의 위치와 지상 구조가 구글어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확인 결과 구글어스는 CP 탱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 모처에 대해 고화질 위성사진을 제공 중이다.

2010년 찍힌 이 사진에는 헬기장 2개소와 주요 초소 등 기지 안팎의 지상 구조물 전체가 담겨 있으며, 사진에서 높낮이 차 등 주변 지형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구글어스는 지도 상에 'CP 탱고'(Command Post Tango)라고 표기하고, 관련 위키피디아(Wikipedia) 항목 링크까지 연결해 놓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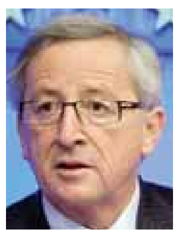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 지도에서는 이 기지에 대한 위성사진은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로드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지 진입로와 주변 지형을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다.

존재 자체가 비밀이던 CP 탱고는 2005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방문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으나 여전히 극비시설에 속한다.

인터넷에는 현재 일부 평화운동가들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CP 탱고의 위치로 알려진 장소의 지도가 유포돼 있다. 조금만 품을 팔면 사실상 누구나 국가기밀시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기밀시설 사진이 구글어스를 통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특히 지도 상에 'CP 탱고'라고 표기됐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사실을 확인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융커, EU 집행위원장 선출



전 룩셈부르크 총리…대표적 유럽통합파

"419조 투자 유치로 실업자 해소하겠다"

장-클로드 융커(59·사진) 전 룩셈부르크 총리가 유럽연합(EU) 행정권력의 수장인 집행위원장에 선출됐다.

유럽의회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실시된 융커 집행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422표, 반대 250표로 융커를 차기 EU 집행위원장으로 뽑았다.

융커는 조제 마누엘 바호주 현 집행위원장에 이어 오는 11월1일부터 5년 동안 EU 집행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융커는 지난달 말 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헝가리의 강한 반대에도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의 지지를 얻어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지명받았다.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의장직을 맡는 등 EU의 권한 확대를 주창해온 대표적인 유럽통합파 정치인이다.

융커는 이날 유럽의회 투표에 앞서 집행위원장 지명자로서 EU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융커는 의회 연설에서 "유럽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3년간 3000억 유로(약 419조14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U와 유럽투자은행(EIB), 민간 부문의 자금을 끌어들여 에너지, 교통, 초고속인터넷망 등을 구축하고 산업 단지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재 유럽연합에는 실업자라는 29번째 회원국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28개 회원국에 통합되도록 이 투자 계획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U 실업자 수는 2500만 명에 달하며 이중 다수는 청년 실업자다.

융커는 자신이 EU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는 5년 동안 EU 회원국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U는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회원국이 15개에서 28개로 급증했다. 융커는 또 EU 전 회원국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민영화 등으로 위협받는 EU 회원국의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를 열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을 뽑을 예정이다. /연합뉴스